



14면

"디지털 세상 끊임없이 도전하라"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음 6월 9일)

제37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1년

중기 경쟁력 강화 산업 전반에 혁신

완주 골드밴 본사에서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참여 기업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성 65% 향상 등 개선효과
현장 안전 강화 위한 설비 개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긍정적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완주군 ㈜골드밴 본사에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도내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가 참여 기업에 상주하면서 공정 개선, 생산 동선 최적화, 작업자 안전 강화 등 제조 현장의 전반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에 참여한 70개 기업은 평균 생산성 65% 향상, 납기 단축 40%, 불량률 감소 42%, 원가 절감 17% 등 주요 지표에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뒀다. 특히,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설비 개선 활동도 함께 이뤄지면서 산업재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과보고회가 열린 ㈜골드밴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혔다. 사출 공정의 생산 동선을 210m에서 77m로 줄이고, 물류 적재 공간 155평을 새로 확보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 군산의 금형제조기업 GSM은 골드밴의 설비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 도내 기업 간 상생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개선된 공정 기반 위에 수출 확대와 판로 다변화까지 이뤄내고 있다. 진안의 토마토ENC는 제품 손실률을 75% 줄이고 대형 유통채널과 월 50만 개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제의 '지평선 농부들'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삼성전자 출신 물류 및 마케팅 전문가를 추가로 제조 전 과정을 혁신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현직 환경안전 전문가의 정례 방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골드밴 김수덕 대표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혁신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본사와 연구소 이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형 스마트공장만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공정, 유통, 경영 마인드 전반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제조혁신의 성과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박승희 CR담당 사장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고 있다"며 "삼성사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지방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확산과 진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일 완주군 ㈜골드밴 본사에서 열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지원 확대 방향을 공유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전국 최고 수준 비자 추가 확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273명
인력 수급 안정 등 위한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273명을 추가로 확보하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쿼터 확대를 이뤘다. 이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 배정한 쿼터 중 전북자치도가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기존 160명에서 총

433명으로 확대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비율로는 171%로 최고 수준이다. 기존 쿼터가 조기에 소진된 상황에서 도는 인력 수요기업의 요청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긴급 추가 배정을 공식 요청했고, 결국 대폭 증액된 쿼터 확보에 성공했다.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 E-10 등)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E74R) 비자도 신설돼, 전주·군산·완주 등지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은 고용계약 기간 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동반 가족의 거주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어능력 요건이 한시

적(내년 12월 31일까지)으로 사후 충족으로 완화돼 진입 장벽도 낮췄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쿼터 확대를 계기로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숙련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착 프로그램 확대,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사업 등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의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갯벌생태마을 지정' 결과에 따르면, 두어마을은 충남 서산의 중암·왕산 어촌마을과 함께 전국 1호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갯벌생태마을' 지정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고 지역 주민의 참여 역량이 뛰어난 마을을 선정해 갯벌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인접한 지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 복원 사업이

고창 두어마을, 전국 첫 '갯벌생태마을'

해수부 지정... 고창갯벌 인접, 생태적 가치 매우 높아



고창 두어마을 전경

진행된 곳이다. 이 지역은 범계,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2025년부터는 도요물떼새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보금자리 조성 등 생물 복원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갯벌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랍사르갯벌센터와 숙박·식당·카페 등을 갖춘 복합센터를 연계한 생태관광 모델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두어마을이 다양한 갯벌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비를 투입해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생태해설사 운영,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고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협의체 구성, 신청서 작성, 현장 평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며, 전국에서 단 2곳만 선정된 이번 결과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구시포 쌍둥이등대